

의학용어 수업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직소 협동학습 경험

이윤주¹, 양정하^{1*}

¹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Jigsaw Cooperative Learning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in Medical Terminology Classes

Yunju Lee¹, Jeongha Yang^{1*}

¹Professor, Dept. of Nursing Science, JEI University

요약 연구 배경: 본 연구는 직소 협동학습으로 진행된 의학용어 수업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이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방법 : 자료는 심층적 개별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Colaizzi 현상학적 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 간호대학생의 직소 협동학습의 경험을 통해 ‘수면아래의 양가감정’, ‘자기주도적 학습으로의 진행’, ‘살아나는 공동체 의식’, ‘성장한 자신과의 만남’, ‘현실적인 한계’, ‘수면위로 올라온 협동’의 6가지 범주가 나타났다. 결론 : 직소 협동학습은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및 공동체 의식과 협동을 통한 성장을 유도하는 매우 유용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판단되며, 본 결과를 기초로 추후 다양한 수업에서 직소 협동학습을 활용한 연구를 제안한다.

키워드 : 직소 협동학습, 의학용어, 간호대학생, 현상학, 자기주도적 학습

Abstract Backgroun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jigsaw cooperative learning in medical terminology classe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and analyzed using the Colaizzi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ology. Results: Six categories emerged through experiences of jigsaw cooperative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The specific categories are 'two contrasting emotions that exist under consciousness', 'progression towards self-directed learning', 'resurrection of community spirit', 'facing the growing self', 'realistic limits', and 'co-operation that has risen above consciousness'. Conclusion: Jigsaw cooperative learning enhances nursing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nd community consciousness. It is a very useful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hat encourages growth through community spirit and cooperation. In the future, we propose a study using jigsaw-cooperative learning in various classes.

Key Words : Jigsaw cooperative learning method, Medical terminology, Nursing students, phenomenology, Self-directed learning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교육 패러다임도 교수자 중심의 단순한 지식 전달 및 암기라는 틀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창의성을 발휘하고 타인과 협동하는 학습자 주도의

*Corresponding Author : 양정하(jhyang@jeiu.ac.kr)

Received December 2,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Revised December 4, 2019

Published December 30, 2019

수업으로 변화하고 있다[1].

한편, 간호교육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기에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안하는 간호교육인증 평가원[2]에서는 졸업 시 달성해야 할 학습성과로 간호 관련 지식 및 술기, 의사소통술, 전문분야 간 협력관계, 비판적 사고과정, 전문적 표준 이해, 리더쉽, 연구 수행능력, 정책변화 인지 등 다양한 역량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3]. 이에 대학마다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설정하고 간호대학생이 졸업 시점까지 여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규 교과 이외에 비정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목 운영 측면에서도 여러 핵심 역량을 달성하기 위해 전통적인 강의식 교수법 이외에 적용 가능한 학습자 주도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4].

의학용어 수업은 간호교육의 학습 성과를 달성하고, 임상에서 간호 직무 수행을 위한 주요 교과목에 해당된다. 간호학 전공 교과 뿐 아니라 해부·생리학 및 병리학 등의 기초 교과 수업에서 의학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5]. 또한, 간호사는 의학용어를 다양하게 적용할 줄 아는 의사소통 및 기록 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간호 기록이 법적 근거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학용어에 대한 확실한 이해는 간호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6]. 그러나 의학용어는 고대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이 많아 이전에 접해보지 않았던 생경한 용어를 익혀야 한다는 점이 학습자에게 부담감을 초래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부담을 낮추고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교수학습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협동학습은 참여 학생 모두에게 일정한 과제를 배분하고 역할을 구분하여 참여하는 소집단 학습이다[7]. 그 중에서도 직소(Jigsaw) 협동학습은 교수자 중심으로 강의 등의 교육을 시행하는 기존의 교수 학습 방법 대신, 학생 전원이 수업의 중심이 되는 학습 구조로 Aronson[8]이 처음 개발한 협동학습 모형이다. 직소 협동학습은 소규모 학생 집단을 구성하고 집단 내에서 학생별로 다양한 주제를 한 가지씩 배정받고, 같은 주제를 할당받은 학생끼리 따로 모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주제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후에 학생은 원래 소속된 집단으로 돌아가서 배정받은 학습 주제를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학습자 주도의 대표적인 학습방법이다. 또한 모든 구성원이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나머지 학생

을 가르칠 임무를 부여받기 때문에, 전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충분한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학습전략이다.

의학용어에 대한 이해는 교과목 이수가 끝이 아니라 간호학 전반의 교육과정과 졸업 후 임상 실무에서까지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의학용어 학습을 접하는 능동적 자세와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습자 전원이 참여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수업에 흥미를 유발하는 직소 협동학습은 의학용어 수업에 있어 유용한 학습방법이 될 것이다.

직소 협동학습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습자나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적용하는 직소 협동학습 모형이 달라지는 양상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에 직소 협동학습을 적용한 결과 관련 지식과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확인하였다[9,10]. Park[4]은 의사소통 교육에 직소 협동학습을 적용 시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되었고, 긍정적 수업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직소 협동학습 적용 전·후로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양적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직소 협동학습을 체험한 학생들이 느끼는 경험의 본질 자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직소 협동학습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전통적 교수학습법에 해당하는 강의 이외에 활용 가능한 교수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직소 협동학습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이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다. 간호학과 학생이 의학용어 수업에서 직소 협동학습을 체험한 맥락을 이해하고 그 과정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여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한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은 의학용어 수업에서 직소 협동학습 교수법을 활용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

둘째, 간호대학생으로 직소 협동학습을 체험한 수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선행연구

2.1 직소 협동학습

협동학습은 참여 학생이 분명하게 할당된 공동 과제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그룹을 이루어 함께 학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8]. 이는 참여자 사이에 상호 의존을 통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역동적 전체가 된다는 사회 상호이론에서, 참여자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협동이라고 제시하고 있다[11]. 이러한 접근에서 시작한 협동학습은 참여자들 모두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 상호간 긍정적 상호의존성을 높이고 개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며,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게 하여 수업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과업을 분배한다. 또한 효율적인 성취를 얻기 위하여 구체적인 수업모형 절차를 진행, 수업 목표, 교수학습 과정, 과제, 보상체계 운영 및 평가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운영된다[12]. 이런 체계 속에서 학생들은 서로에게 배우고, 과제 완수를 위해 서로 협조함으로써 참여자 간에 지원적 관계 형성, 의사소통 기술, 사고능력 발달을 격려할 수 있게 계획된다[13]. 게다가 학생들은 서로 협력하고, 즐거움, 흥미를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11].

협동학습의 대표적인 교수학습 방법인 직소 협동학습은 Aronson[9]이 고안한 모형이다. Aronson이 처음 사용할 당시에는 학업성취보다는 미국 학교 내의 인종·문화간의 대립과 긴장감을 해소하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도하는 정의적 측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직소' 용어는 수업형태가 마치 직소퍼즐(Jigsaw puzzle)과 비슷하다는 데에서 유래되었고, Johnson, Johnson & Holubec[14]은 직소 협동학습은 다음의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긍정적 상호의존으로 각 그룹 구성원은 그룹의 성공을 위해 노력한다. 둘째, 학습자 간 면대면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셋째, 모든 학습자들에 개인과 그룹별 책무성이 존재한다. 넷째, 협동학습 결과로 리더십, 의사결정, 신뢰 형성, 의사소통, 갈등 관리 등의 대인관계 기술이 향상된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논의하고 의사 결정하는 등의 집단 과정을 이룬다. 이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방식으로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하도록 하는 학습법으로 강의식 수업 방식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직소 협동학습은 정서적, 동기적, 인지적 변화를 야기한다[14]. 학습자들은 불안감과 고립감이 감소하고, 자신감 등이 상승하는 정서적 영역에 영향을 받고,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가 강화된다. 이는 학습자들이 적극

적인 참여와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의 증진으로 인지적 영역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학습자들이 원활한 학습활동을 위해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15].

직소 협동학습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시뮬레이션 교육에 직소 협동학습을 적용한 결과 관련 지식과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확인하였으나, 내적동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9,10]. 박정혜[13]는 의사소통 교육에 직소 협동학습을 적용 시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향상되었고, 긍정적 수업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기본간호학 수업에서 직소 협동학습을 적용한 결과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자율성과 계획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16]. 이상을 살펴보면, 직소 협동학습의 정의적, 인지적 영역에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 체험한 실제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는 연구는 확인되지 않은 실정이다.

2.2 의학용어 수업

의학용어 수업은 간호학의 전공 기초 교과목인 해부·생리학, 병리학 등의 수업에서 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간호학 전공 교과목 수업의 중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5]. 의학용어 수업의 중요도와 필요도를 고려한다면 학습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고려되어야 한다.

의학용어 수업과 관련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권영미[17]는 의학용어 웹기반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웹기반 학습형태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됨을 보고하고 있다. 스마트 교육을 통한 간호영어 학습 프로그램 적용 효과로 성취도와 만족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18]. 플립러닝을 활용한 간호 영어 수업은 인지과정, 상호작용, 자기주도 학습, 기술 사용, 교수자의 역할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19]. 팀기반 학습 방법 적용에 관한 질적 분석 결과로 동료와 친밀감을 형성하며, 학습동기가 강화되고, 학습이 용이하며, 의학용어 암기가 쉽고, 즐거운 학습시간으로 기억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20].

이상을 살펴보면, 의학용어 수업을 위한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온 실정이나, 양적연구를 통한 효과성을 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 양적 자료 분석과 함께 질적 연구 자료 수집을

시행하여 참여 경험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얻은 경우가 있었으나,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의학용어 수업에 직소 협동학습을 적용한 연구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의학용어 수업에 적용한 직소 협동학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알아보기 위해 인간 경험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Colaizzi[21]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질적 연구이다.

3.2 연구 대상

본 연구참여자는 J대학 간호학과 학생이면서 ‘튜터링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의학용어 수업에 참여한 학생을 임의적으로 8명을 표본 표출하였다. 의학용어 튜터링 수업은 총 4회, 16시간 운영되었으며 필수단어, 심혈관계, 혈관계, 호흡기계 용어에 대한 직소협동학습이 이루어졌다. 이때 교수자는 소집단은 분류하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 뒤 전문가 집단 사전모임을 통해 학습 전략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협동학습 진행 전반동안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학습을 지원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직소 협동학습 경험 속 공통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연령, 성별, 선호하는 교수학습 방법, 협동학습 경험 및 학습성격 유형 등을 표출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 연령은 20~23세 5명, 24세~26세 2명 및 29세 1명이었으며, 성별은 여성이 6명, 남성이 2명이었다.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교수학습 방법은 강의식 수업이 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구참여자 전원이 조별협동학습 경험 하였으나 직소 협동학습 경험은 2명뿐이었다. 참여자의 학습성격 유형은 행동형이 3명, 이상형이 4명, 규범형이 1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에게 면담 시행 전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참여자들의 자발적 참여 동의와 연구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 면담이 이루어졌다. 참여자가 연구를 동의했다 하더라도 자료 수집 과정에서 참여자가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음되고 기록되나,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연구가 종료된 후에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3.3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와 관련된 수업을 이수하였으며 국내외 질적 연구 학술대회 및 질적 연구 워크숍을 참여하여 질적 연구자들과 연구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학문적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

3.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11월 5일 부터 2018년 11월 16일까지로 자료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심층면담과 관찰을 통해 수집되었다. 개별 면담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대화를 녹음하였고, 최소 40분에서 최대 1시간가량 소요되었다. 면담 중에는 현장 노트를 활용하여 참여자의 특징, 비언어적 의사소통, 연구자의 생각 등을 기록하였다.

면담은 개방적이고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자의 선입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참여자의 진술에 연구자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참여자의 말을 해석하거나 비판하는 태도를 지양하였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맥락에 맞는 추가 질문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일련의 절차를 철저히 따랐고,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 경청자의 입장을 취하였고, 면담 자료를 생생히 담기위해 녹음 작업을 세심히 관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면담 즉시 자료를 필사하고 반복 청취하여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 노트 등의 부수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자료의 민감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녹음된 면담 내용을 참여자의 표현 그대로 필사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추가 면담이 필요한 추가 면담을 시행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면담은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르는 시점까지 진행하였다.

면담이 끝난 뒤 참여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였고,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자 이름 대신 참여자 1, 참여자 2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3.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Colaizzi[21]가 제안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참여자의 관점에서 공통적인 진술을 묶어 추상화시켜 의미 있는 진술을 구성하였다. 첫 단계로 필

사한 면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고 의미 있는 진술 193 개를 도출하고, 두 번째로는 참여자에게 비슷한 속성의 진술을 재 진술하게 하며 다른 참여자의 자료에서 유사한 진술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는 진술, 재진술 과정에서 도출된 의미를 구성하여 80개의 의미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의미를 27개의 주제(Themes), 13개의 주제모음(Theme clusters) 및 6개의 범주(Categories)로 구성하였다. 다섯 번째는 주제모음을 통합적으로 기술하고 마지막 단계로 분석과정을 통해 도출된 본질적인 구조가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참여자에게 확인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본질적인 주제를 참여자에게 설명한 후에 직접 읽도록 하여 참여자가 진술한 의미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 본질적인 주제와 연구참여자의 경험사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22]가 제시한 엄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사실적 가치, 중립성, 일관성, 적용성의 측면에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사실적 가치(truevalue)는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며 연구 결과가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직소 협동학습 경험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질문하였으며 참여자에게 자신의 진술이 분석된 결과와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여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2인에게 분석과정과 결과 도출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연구의 신빙성을 높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에게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참여자가 진술한 직소 협동학습 경험 내용과 일치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중립성(neutrality)은 연구과정과 결과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편견에서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데 양적 연구의 객관성에 해당한다.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선 가정을 기술하고 자료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성찰하였고 참여자들이 언급한 내용만 몰입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일관성(consistency)은 양적 연구에서 신뢰도에 해당하며 자료의 수집과 분석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며 참여자들에게 비슷한 상황에서 질문을 반복하였을 때 연구결과가 일관성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Colaizzi[21]가 제시한 6단계의 분석 절차를 준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적용성(applicability)은 연구 이외의 맥락적 상황이나 장소에서도 연구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본 연

구에 참여하지 않고 연구 참여자와 같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간호 대학생 3명에게 본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을 때 연구 결과에 공감하였다는 피드백을 확인하여 적용성이 확보되었다.

4. 연구결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직소 협동학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은 수면아래의 양가감정, 자기주도적 학습으로의 진행, 살아나는 공동체 의식, 현실적인 한계, 성장한 자신과의 만남, 수면위로 떠오른 협동의 6개 범주로 도출되었다<Table 1>.

4.1 범주 1. 수면아래의 양가감정

이 범주에는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함’, ‘우려속에서 기대함’, ‘눈치를 봄’의 주제모음을 포함하였다. 참여자들은 튜터링이 진행된다는 부분이나 협동학습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정보에 상관없이 불편해하고 필수참여가 아니라면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학습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보다 걱정이나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 협동학습팀원으로 참여하거나 전문가간 참여하는 과정에서 눈치를 보는 불편함을 경험하였다.

4.1.1.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함

이 주제모음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함’,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 필수 참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사전에 자신의 경험이나 주변으로부터 받은 정보로 인해 긍정적 이기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연강으로 계속 듣는 줄 알고...고등학생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나? 대학생인데?”(참여자 1)

“튜터링프로그램이 그냥 자습하는 것만 그러니까 막 도움이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참여자4)

“나머지 학습이잖아요. 어쨌든. 그냥 귀찮음이죠. 뭐. 그게 진짜 그게 제일 큰 거 같아요. 솔직히.”(참여자 8)

4.1.2. 우려속에서 기대함

이 주제모음은 ‘협동학습에 대해 우려함’, ‘협동학습에

대해 기대함'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협동학습으로 진행되는 것을 듣고는 서로 다른 성향들이 달라 공부학습방법도 다른 상황에서 가르쳐 주고 도움을 준다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였다. 반면, 강의식이 아니고 동료들과 함께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긍정적인 마음을 드러내었다.

“혼자 공부하는 것은 잘 하는데.. 누굴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부담이 많이 되고... 무엇을 알려줄 수 있을까. 다른 친구가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준비를 해올까 해서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참여자 3).

“전 한번도 여태까지 살면서 제가 선생님이 된 적은 없었거든요. 항상 가르침을 받아왔지. 그러니까,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자리니까.”(참여자 2).

4.1.3. 눈치를 봄

이 주제모음은 ‘불편함을 숨김’, ‘교수 앞에서 긴장함’, ‘평가를 견뎌야 함’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협동학습 팀원이나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이나 평가 시 교수 또는 동료학생들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반응에 상당히 신경을 쓰며 긴장하였다.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드러내지 않고 감정이나 행동을 숨기게 된다고 하였다.

“아무래도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니깐. 저는 학생이니깐요.”(참여자 2)

“동기다 보니까 많이 틀리면 창피할 거 같은 거예요. 동기는 하루 종일 얼굴을 부딪혀야 되는데...”(참여자 7)

“교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압박감. 그런 거죠. 너무 교수님이 쳐다보고 계시면 아무래도 부담돼요. 사람 심리 가...”(참여자 8)

4.2 범주 2. 자기주도적 학습으로의 진행

두 번째 범주는 ‘효과적인 전략을 찾음’, ‘스스로 의미를 키워감’의 주제모음이 포함되었다. 전문가 역할이나 협동학습 팀원으로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책임이라는 부담 속에서 학습방식의 차이 속에서 도움되는 전략을 찾아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협동학습 진행에서 자발적으로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의미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였다.

4.2.1. 효과적인 전략을 찾음

이 주제모음은 ‘학습방식의 차이 가운데 방법을 찾음’, ‘전문가 역할로 교육방식을 찾음’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학습방식의 차이라는 한계를 인식하면서 팀원이나 전문가 역할 시 높은 교육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적합한 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하였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되게 긍정적으로 공부하게 되거든요. 저는 노는 형식으로 했거든요. 그냥 이거 약간 주입식이 아니라 정말 재밌게...(참여자 5).

“혈액과 림프계 부분을 찾아가고 공부를 한 다음에 애들한테 어떻게 더 편하게,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줄까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참여자 4).

4.2.2. 스스로 의미를 키워감

이 주제모음은 ‘책임감을 가지고 성찰함’, ‘자율적 참여를 즐거워함’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영역은 다르지만 순서에 따라 자신이 맡은 영역에 대한 전문가 역할을 수행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가진 책임감은 상당하였고, 부족한 자신의 역량을 살펴보고 보다 나은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1명을 제외하고 7명의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강의보다 자유로운 학습환경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다보니 보다 즐겁게 학습을 하며 효과도 좋았다고 하였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무래도 제가 못하면 친구들이 피해를 보니까. 일단 내가 이해를 해야지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겠구나. 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게 되더라고요.”(참여자 2)

“교수님들의 마음이나 생각이 좀 어려시겠구나. 싶었어요. 아이들이 묻고 하는 행동을 보면서요.”(참여자 1).

“뭔가 긴장이 풀리고. 저희끼리 입 다물고 가만히 듣는 게 아니라 오~하면서 리액션을 하고 따라 하면서 막 배우다 보니까 이게 공부로 막 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놀면서 배운다는...”(참여자 7)

4.3 범주 3. 살아나는 공동체 의식

세 번째 범주는 ‘나누고 채워감’, ‘이해하고 배려함’으로 구성되었다. 협동학습을 하는 전 과정에 대한 경험에서 전문가끼리는 팀에 알맞은 방법을 공유하고 함께 좋은 결과를 바라며 노력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같은 입장

이기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챙겨주면서 처음과는 다른 재미를 찾았다고 하였다.

4.3.1. 나누고 채워감

이 주제모음은 ‘팀에 알맞은 방법을 공유함’, ‘같이 부족한 것을 채워감’의 주제를 포함하였다. 전문가로 참여할 때 뿐 아니라 팀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도움되는 방법들을 공유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였으며 자신들이 각자 부족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서로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단어를 정리, 어근끼리 정리, 그리고 그 단어의 의미 같은 거 정리해서 진행했어요, 만드는 거는 따로따로 만들고, 같이 쓰는 거 있고.”(참여자 4)

“다들 야! 우리 진짜 수고했다. 이렇게 하니깐 그냥 되게 나름 감동적이었던 거 같아요. 서로서로 고생했는데 결과도 나쁘지 않고 좋으니까.”(참여자 8)

“더 서로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역할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좋았어요.”(참여자 3)

4.3.2. 이해하고 배려함

이 주제모음은 ‘과정에서 배려함’, ‘미처 몰랐던 동료학생의 모습을 발견함’을 포함하였다. 참여자들은 개별 참여자들의 학습속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다려주면서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평소 알지 못하는 동료의 성향을 알게 되면서 보다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누가 느린지, 누가 빠른지 아니까 기다려주고 다독다독해주고, 제가 외우는 방법 같은 것도 알려주면서.”(참여자 1)

“더 화기애애해졌어요. 더 편해지고, 평소에 말하지도 않았던 친구들을 4시간동안 말도 해보고, 제가 리더가 돼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러니까요.”(참여자 2)

4.4 범주 4. 성장한 자신과의 만남

이 범주는 ‘과정에서 긍정을 찾음’, ‘결과에서 긍정을 찾음’의 주제모음으로 파악되었다. 참여자들은 협동학습이 진행되는 과정 뿐만 아니라 평가를 받는 시험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하였으며 자존감의 상승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4.4.1. 과정에서 긍정을 찾음

이 주제모음은 ‘동료를 과정속에서 바라봄’, ‘가르치는 행위 자체로 도움을 받음’의 주제로 파악되었다. 모든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협동학습이 진행되면서 준비하고 참여해 온 과정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최종 결과보다 과정을 전체로 인식하면서 동료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 같이 거의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된 건지는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던 거 같아요.”(참여자 5)

“좀 느렸던 것뿐이지. 다른 친구들보다. 친구도 어쨌든 결국은 과정에서 미달했던 거지.”(참여자 6)

“친구가 많이 틀리면 틀리는 대로 또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보게 되어 복습같이 하는 거니까.”(참여자 3)

4.4.2. 결과에서 긍정을 찾음

이 주제모음은 ‘평가를 받아들여 앞으로 나아감’, ‘고맙다는 말이 보상을 줌’으로 파악되었다. 동료들이 제공하는 피드백이나 평가결과를 보면서 자신들이 협동학습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공부 안 했을 거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동기가 없으면 공부를 안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평가시험이 있어 더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참여자 8)

“고마워 말도 해주고, 저를 바라보면서 정말 꼭 제가 교수님이 된 것처럼.”(참여자 2)

4.5 범주 5. 현실적인 한계

다섯 번째 범주는 ‘경쟁이 존재함’, ‘전문가로 준비되지 않음’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협동학습의 초반부터 결과에 다다를 때까지 참여자들은 상대적인 평가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르쳐야 하는 부담감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강의식과 달리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찾아내는 준비과정이 버거웠다고 하였다.

4.5.1. 경쟁이 존재함

이 주제모음은 ‘상대를 견제함’, ‘평가를 피할 수 없음’의 주제로 파악되었다. 전문가 또는 팀원으로 협동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인식되는 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역시 똑똑한 친구들과 함께 모여 우리 조는 정말 똑똑하구나. 은근히 옆에 조랑 경쟁이 있거든요.”(참여자 7)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라도 경쟁이 되어 정말 협동학습이 아니라 협동학습을 포장한 경쟁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참여자 6)

4.5.2. 전문가로 준비되지 않음

이 주제모음은 ‘부족한 전문성으로 걱정함’, ‘역할을 위한 준비로 힘듦’의 주제로 파악되었다. 모든 참여자들이 전문가 역할을 하며 동료들을 학습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진 전문성의 부재로 인한 걱정이 많았다. 강의식에 비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학습관련 도움방법을 찾아내는 과정 속에서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다보니 그 자체를 힘들게 생각하기도 하였다.

“배우지 못하였던 과목을 독학하여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갑갑하기도 하고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모를 불안감도 들었어요.”(참여자 2)
 “제가 준비하고 애들한테 가르치는 건데.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 더욱 긴장도 되고. 지식이 없이 오면 친구들한테 미안해서 자료를 찾고 했어요.”(참여자 6)
 “멘토되는 사람이 준비를 해야되니까 일단은. 강의식은 그냥 다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준비를 해오고 이러니까.”(참여자 3)

4.6 범주 6. 수면위로 올라온 협동

마지막 범주는 ‘도움되는 약이 됨’, ‘협동을 위한 요구를 함’의 주제모음으로 구성되었다. 협동학습을 진행하는 가운데 처음 기대와 달리 스스로 경험한 참여자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보다 친숙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며 원하는 학습도 가능한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협동이 잘 되려면 무엇보다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고 자유롭게 협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4.6.1. 도움되는 약이 됨

이 주제모음은 ‘처음에 힘들지만 도움됨’, ‘지식과 친함이 함께 함’의 주제로 파악되었다. 참여자들은 협동학습

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걱정을 하였으나 실제 참여하면서 대인관계나 지식의 면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는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양과는 까도까도 매력있다고 하잖아요. 의학용어에 대해 의미를 더 공부하다보니 다른 교과목 하는 데도 더 머릿속에 잘 들어왔던 거 같고.”(참여자 4)
 “솔직히 처음에 당연히 말 많고 그랬지만 나중에 효과가 좋아요. 저는 배운 방법을 통해 공부하다보니 의학용어 공부시간이 좀 줄었어요. 약 같아요. 처음에 쓰지만 나중에 도움되는.”(참여자 5)

4.6.2. 협동을 위한 요구를 제안함

이 주제모음은 ‘교수의 응원과 분위기 형성 지도가 필요함’, ‘적정 틀 안에서 자유로운 협동학습을 기대함’의 주제로 파악되었다. 협동학습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모든 참여자들은 적절한 틀을 제시하지만 자유로움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수자의 지속적인 응원과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질문에 대한 피드백 같은 걸 많이 받아주면 좋을 거 같아요. 한번씩 만 분위기 잡아주시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6)
 “교수님이 솔직히 더 많이 아시니까 교수님이 계속 지켜보면 준비했다가도 자신감이 없어 더 긴장하고 그래요..”(참여자 8)

<Table 1> Experience on Jigsaw Collaboration Learning among Participants

Theme	Theme clusters	Category
Must be involved	Making Unwanted Selections	Two contrasting emotions that exist under consciousness
Recognized in negative due to prior experiences		
Concerns about collaborative learning	Expecting out of concern	
Expectations of collaborative learning		
Concealment of inconvenience	Being tactful	
Nervousness in front of a professor		
Must endure evaluation		

Found a method in the difference between learning methods	Founding an effective strategy	Progression toward self-directed learning
Find a way of teaching as an expert		
Reflection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To Add meaning to yourself	
Pleasure in autonomous participation		
Share the right way for your team	Dividing and filling	Resurrection of community spirit
Fill in one's deficiencies together		
Consideration in the process	Understanding and being considerate	
Discovery of a fellow student's strong point that he had not known before		
Look at one's colleagues in the process	Finding positive aspects of the course	Facing the Growing Self
Be helped by the act of teaching.		
Accept the assessment and move forward	Finding the positive aspects of the result	
"Thank you" is a reward		
Check one's opponent	Competition is underlying	Realistic limit
Can not avoid the assessment		
Worried by lack of expertise	Not prepared as an expert	
Struggling to prepare for a role		
Hard but helpful at first	Helpful medicine	Co-operation that has risen above consciousness
combination of knowledge and familiarity		
Need a professor's cheering and mood-building up	Making necessary demands for cooperation	
Expecting a autonomous cooperative learning from the proper framework		

5.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학용어 수업에 대한 직소 협동학습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의 직소 협동학습 경험은 ‘수면아래의 양가감정’, ‘자기주도적 학습으로의 진행’, ‘살아나는 공동체 의식’, ‘성장한 자신과의 만남’, ‘현실적인 한계’, ‘수면위로 올라온 협동’의 여섯 범주와 이에 13가지의 주제모음 및 27개의 주제로 규명되었다.

본 연구의 제 1범주는 ‘수면아래의 양가감정’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함’, ‘우려속에서 기대함’ 및 ‘눈치를 봄’의 세 주제모음을 포함하였다. 이 중 ‘원하지 않는 선택

을 함’에는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학용어에 대한 학습이 의무적으로 진행되다보니 고등학생의 야간 자율 학습을 연상하거나 나머지 수업을 떠올리는 모습이었다. 더욱 주변 선배나 친구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인식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진행되는 것 자체를 시간낭비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학생의 조별과제 경험에 대한 연구 [23]를 보면, 대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사전에 얻은 정보로 조별과제에 대해 이미 각본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하였다. 이런 행동들은 협동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방해하므로 적극적인 파악이 요구된다.

또한, ‘우려속에서 기대함’은 연구참여자들이 의학용어 담당 영역을 사전학습을 하여 전문가로서 수업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부분으로 부담을 크게 토로하였지만,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재미를 기대하는 측면도 볼 수 있었다. 이 범주의 주제모임인 ‘눈치를 봄’은 프로그램 전반적 영역에 나타는 것으로 연구참여자들은 교수, 전문가 및 팀원들의 반응을 신경쓰며 소극적으로 의견제시하거나 불편한 마음들을 언어로 표현하기보다 참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다. 영어 수업에 직소 협동학습을 진행한 연구[24]에서 동료들을 의식하여 대인관계에서 불편함을 경험한 내용과 일치하므로 학습과정 내 불편한 감정표현을 표출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가감정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서 서로 반하는 감정이 동시에 엉켜있는 상태인데[25], 연구참여자들은 직소 협동수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진행과정에서 불편한 사고와 감정을 소유하며 주변을 살피는 행동을 하지만, 이런 감정, 사고 및 행동을 함께 하는 동료나 교수에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기 보다는 자체 판단을 통해 정리하는 방식을 함으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교수가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학생들이 좋은 수업의 요건을 탐색한 연구에서 수업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지는 수업을 희망하고 있지만[26] 학생 스스로 전문가로 동료들을 가르치며 평가를 받는 과정에 기존의 관계가 존재하다보니 학생들은 희망하는 방식의 수업이고 의학용어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인식하면서도 불편함을 크게 토로하였다. 튜터링 프로그램에서 튜터와 튜티의 관계가 성공의 중요 요인으로 거론한 연구[27]와 일치하는 결과로, 직소 협동학습을 진행 시 교수는 동료간, 교수-학생간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범주는 ‘자기주도적 학습으로의 진행’으로 ‘효과적인 전략을 찾음’과 ‘스스로 의미를 키워감’의 주제모음을 포함하였다. 협동학습의 방법에서 직소 협동학습의 차별성은 모든 학생들이 각 영역을 담당하고 학습을 준비하여 팀원들에게 교육을 전달해간다는 것이다[8]. 이런 협동방식은 전문가로 학습내용을 교육해야 한다는 부분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면서도 그들은 동일한 학생 입장에서 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하며 주변의 피드백을 받아 전략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능동성이 높아나는 수업이므로 과정에 대한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초등예비교사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소 협동학습을 진행한 연구[28]에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하위요인인 주인의식, 정보탐색 및 문제해결, 내재적 동기 및 자기성찰에 효과를 보인 결과와 일치한다.

세 번째 범주는 ‘살아나는 공동체 의식’으로 ‘나누고 채워감’과 ‘이해하고 배려함’의 주제모음을 포함하였다. 직소 협동학습에서 동료들이 보인 이해와 배려에 대해 최은영의 연구[24]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하고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편적인 이해와 배려가 아닌 공동체 의식으로 더해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간의 결속으로 서로의 욕구가 충족되어질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서적인 유대감으로[29] 간호대학생의 공동체 의식정도를 파악한 연구[30]에서 공동체 의식정도가 보통정도로 나타났다. 업무간 연계성이 높은 간호사들의 업무를 생각해 볼 때 공동체 의식은 무엇보다 중요한 개념으로, 서로간 정서적인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결속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31]. 직소 협동학습은 각자가 전문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되는 과정에서 팀원들의 참여와 도움이 없이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느낌으로 보다 강력한 차원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학습방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감성지능이 의사소통 기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므로[32],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도움을 주고 받는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도록 수업과정 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경우 간호대학생 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네 번째 범주는 ‘성장한 자신과의 만남’으로 ‘과정에서 긍정을 찾음’과 ‘결과에서 긍정을 찾음’의 주제모음을

포함하였다. 의학용어는 실무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내용이다[33]. 연구참여자들은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실질적인 사용 경험이 없다보니 동기가 부족하여 수업을 상당히 어려워 하는 경향을 나타냈었다. 직소 협동학습을 활용한 의학용어 수업에서 무엇보다 가르치고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보상을 경험하면서 결과에 초점을 둔 방식에서 과정까지도 관심을 둘 수 있는 보다 성장한 자신과 마주하는 경험을 통해 의학용어의 수업에 대한 동기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결과는 직소 협동학습이 학습동기강화와 영어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를 가져온 연구[25]와 일치하고 기존 방식 대비 내재 동기강화에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9]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네 번째 범주는 ‘현실적의 한계’로 학습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평가 내 경쟁이라는 인식이 협동학습의 과정에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의학용어의 수업 위한 웹기반 프로그램 적용 시 직소 협동학습의 방법을 활용한 연구[33]에서 과도한 학습량이나 시험에 대한 부담 등을 어려웠던 점으로 지적한 것과 일치한다.

또한, 전문가 역할의 학생이 해당 영역에 대한 전문성이 장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적인 불편함이나 학습노력은 방향을 적절히 잡지 못할 경우 소모적일 가능성도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24]. 직소 협동학습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교수는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동료와 전문가간 상호작용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보 제공이나 필요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직소 협동학습이 진행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범주인 ‘수면위로 올라온 협동’은 ‘도움 되는 약이 됨’과 ‘협동을 위한 요구를 함’의 주제모음으로 파악되었다. 직소 협동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영역에서의 변화를 경험하는데[24] 본 연구에서는 수업 후 별도 시간을 가져 공부해야 하는 등의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지식과 친밀함이 공존하는 수업이었다고 하였다. 이는 의학용어 수업에 팀 기반 학습방법을 적용한 연구[2]와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은 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하고 많은 과업, 시험이나 다양한 방식의 평가 등으로 상당한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34], 이런 불가피한 경쟁적인 환경으로 인해 동료학생들을 함께 하는 동료로서의 생각하기보다 경쟁자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직소 협동학습을 하는 과정에

서도 경쟁자로 인식함이 존재하지만, 서로 배려하고 이해 하면서 자신과 동료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고민 하며 발전하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을 통해 간호대학생에 게 협동이 자신들의 관심과 태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향상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

5. 결론

본 연구는 의학용어 수업에 대한 직소 협동학습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경험들을 통해 협동학습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직소협동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직소 협동학습 경험은 ‘수면아 래의 양가감정’, ‘자기주도적 학습으로의 진행’, ‘살아나는 공동체 의식’, ‘성장한 자신과의 만남’, ‘현실적인 한계’, ‘수면위로 올라온 협동’의 총 6가지 범주와 13개의 주제 모음과 27개의 주제로 구조화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직소 협동학습은 초반에 지닌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함께 도움 주며 어려운 부분 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동학습의 긍정적인 면을 더 경험하는 과정이었다. 간호대학생들이 기존 스트레스 를 받아 거부하는 팀학습이 아닌 하고 싶어 하는 협동학 습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평가방식에 대한 보 완도 필요할 것이고, 분위기 형성을 통한 인식개선도 필 요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본 연구 의 간호대학생의 요구인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 수학습 방법의 체계뿐만 아니라 교수의 응원과 전반적인 분위기 형성 등의 물리적 환경과 정서적지지 환경 조성 을 통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의학용어 수업에서 간호대학생의 직소협동 학습 경험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수업에 직소협동 학습 적용하고 정서적·동기적·인지적 영역의 변화를 확인 하는 양적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1] M. O. Seo. (2015). *Educational method and technology(pp.13-19)*. Goyang: Knowledge Community;

[2]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9). <http://www.kabone.or.kr/kabon02/index.php>

[3]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9). Retrieved April, 2017, from <http://www.kabone.or.kr/kabon02/index04.php>

[4] J. H. Park. (2010) Effectiveness of cooperative learning on nursing students' performance and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2), 202-212.

[5] G. S. Shin & M. K. Cho. (2014). The knowledge, need, and usage of medical terminology in clinical nurs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16(4), 276-283.

[6] K. J. Song. (2007). Analysis of the nursing practice in a medical icu based on an electronic nursing recor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7(37), 883-890.

[7] E. G. Cohen. (1994). Restructuring the classroom: conditions for productive small group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4(1), 1-35.

[8] E. Aronson. (1978). *The Jigsaw classroom*.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9] J. A. Kim. (2012). Effect of cooperative learning applying jigsaw model in nursing simulation based educ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2(4), 49-69.

[10] H. Y. Cho. (2015). Effect of cooperative learning applying jigsaw model in simulation - based infection control education on perception of infection control, intrinsic motive and learning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4), 2647-2655. DOI : 10.5762/KAIS.2015.16.4.264

[11] D. W. Johnson, R. T. Johnson & K. A. Smith. (2014). Cooperative learning: Improving university instruction by basing practice on validated theory. *Journal on Excellence in College Teaching*, 25(3&4), 85-118.

[12] S. Y. Jeon, B. Y. Choi, H. J. Lee, Y. N. Ko & Y. M. Lee. (2010). *Cooperative Learning Models*. Seoul: Hakjisa.

[13] Y. K. Lee & G. P. Park. (2017). Recent research on cooperative learning and an suggestion of cooperative learning model for english reading education. *The Institute of Humanities at Soonchunhyang University*, 36(2), 163-196.

[14] D. W. Johnson, R. T. Johnson & E. J. Holubec. (1993). *Cooperation in the classroom (6th ed.)*. Edina, MN: Interaction Book Company. U.S.A

[15] H. R. Lee. (2015). The effect fo EFL students

- cooperative learning on their communication apprehension willingness to communicate. *Studies in Linguistics*, 35, 271-292.
- [16] J. Y. Eom & M. K. Shin. (2017). The effect of jigsaw cooperative learning method on the self-led learning capabilities, task solving ability and class satisfac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ese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12), 241-251.
DOI : 10.14257/ajmahs.2017.12.36
- [17] Y. M. Kwon. (2006).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web-based nursing educational program-focused on the medical terminolog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2(1), 41-51.
- [18] H. H. Kim & D. B. Jung. (2015). College students' learning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learning nursing english based on smart education.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15), 621-629.
DOI : 10.5392/JKCA.2015.15.09.621621
- [19] N. H. Kang. (2017). A case study of ESP nursing course based on flipped learning. *Culture and Convergence*, 39(5), 323-366.
- [20] S. O. You. (2017). Team based learning experience and effect on study of preliminary learners on medical terminology. *The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17(7), 101-112.
DOI : 10.5392/JKCA.2017.17.07.101
- [21] P. F. Colaizzi.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Vaile, R. & King, M. (2nd ed.).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pp. 44-71).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22] Y. S. Lincoln & E. G.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pp. 310-334).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23] H. J. Han & E. Y. Lee. (2015). The significance of team projects for undergraduates: Necessary for change in mannerism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Kyungshung University*, 31(4), 121-149.
- [24] E. Y. Choi. (2007). Learners' experiences during cooperative learning in a college english reading classroom. *English21*, 20(1), 133-180.
- [25] Wikipddia. (2019). (2014. November. 3.). <https://ko.wikipedia.org/wiki/%EC%96%91%EA%B0%80%EA%B0%90%EC%A0%95>
- [26] E. J. Im, Y. C. Lee, B. H. Chang, S. K. Chung. (2010). Investigation of the requirements of good teaching to improve teaching professionalism in med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2(2), 101-111.
- [27] A. N. Han. (2011). The Effects of Learners' Perceived Roles of a Tutor on Satisfactions and Perception of Learning Achievement in Peer Tutoring Program.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 11(4), 467-494.
- [28] Y. S. Lee & S. S. Kim. (2015). The effec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task commitment through the Jigsaw cooperative learn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arth Science Education*, 8(1), 87-97.
DOI : 10.15523/JKSESE.2015.8.1.87
- [29] K. M. Lim. (2013). College sense of community relation to college characteristics- Focused on Pyeongtaek University.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23(2), 157-167.
- [30] S. B. Kwon & M. H. Kwak. (2018). Influence of self-leadership and sense of community on orgnizat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2(3), 169-180.
DOI : 10.12811/kshsm.2018.12.3.169
- [31] S. H. Bae, M. B. Lee, K. S. Seo & S. C. Lee. (2001). The impact of the user's participatory incentives on the sense of virtual community and loyalty. *Yonsei Busniess Review*, 38(2), 207-231.
- [32] M. J. Kim. (2018).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and post-traumatic growth on communication skill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16(3), 23-32.
DOI : 10.5392/JKCA.2016.16.09.286
- [33] Y. M. Kwon. (2006).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web-based nursing educational program : Focused on the medical terminology.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2(1), 41-51.
- [34] M. H. Lee & M. S. Park. (2014). Sense of coherence and academic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2), 863-872.
DOI : 10.5392/JKCA.2014.14.12.863

이 윤 주(Yun-Ju Lee)

[정회원]



- 1997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8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의료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4년 2월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 직장 내 괴롭힘, 대인관계, 자살
- E-Mail : daminzimin@naver.com

양 정 하(Jeongha Yang)

[정회원]



- 199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인천재능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교수학습, 회복탄력성
- E-Mail : jhyang@jeiu.ac.kr